* 올라 - 안녕하세요

Olá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샬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TATO

TELEFONE:
+55 86 98858-7078

EMAIL:
mkckh@hotmail.com
kakaotalk ID:
강경찬 manuk0522
김민경 calmin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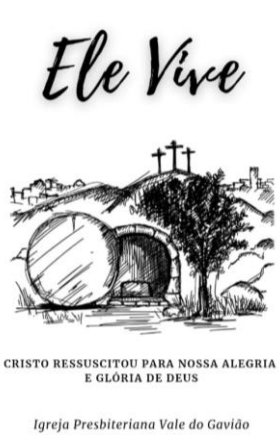
TERESINA REPORT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망고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같은 땅에 심겨져 같은 종에 속한 나무일지라도 어떤 나무는 일찍 열매를 맺고, 또 어떤 나무는 더디게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망고나무는 하나같이 자기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긴 계절을 묵묵히 견디며, 나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망고가 서로 다른 때에 열리기에, 우리는 일 년 내내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망고나무가 주는 것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 쉬게 하고, 갑작스러운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내어주어 다시 힘을 얻게 합니다.

저는 이곳에 심겨진 발리 두 가비엉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머무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지친 이들에게 그늘과 쉼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나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때에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VALE DO GAVIÃO 소식



부활절 예배

4 월 브라질에서는 성금요일을 맞아 전날인 목요일 오후부터는 휴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기간에 맞춰 수련회를 합니다.

ALTOS 마을에서 전도와친교

목사님 축복하는 시간

⇩ 어머니의 날

Rev. Marcos Rogério

처음으로 저희 교회도 이 기간에 성도들과 함께 ALTOS 외곽에 있는 교인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지역에서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5 월 두 번째 주일은(Dia das Mães)어머니의 날입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길 기도합니다.

5 월부터 교회 찬양팀에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노방전도를 합니다. 교회 앞에 도로가 새로 포장되어 많은 차들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찬양과 말씀 선포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뿌려지는 복음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6 월 두번째 주일에 Victor (빅톨)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기전 많은 긴장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삶에 평안함과 자신감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빅톨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잘 성장하여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두번째 주 토요일에 Casal aos olhos de Deus(하나님의 눈에 비친 부부) 주제로 Rev. Marcos Rogério(마르코스 로제리오) 목사님을 모셔 세미나를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함께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 였습니다.

7 월 마지막 주일은 브라질 장로교 청소년의 날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pizza 를 먹으며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덤으로 다른 도시에서 일하다 다시 돌아온 Gardenia 와 Rebeca 도 환영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버림받은 청소년들이 있어 성도들이 함께 살핍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집을 돕기 위해 학업과 일하는 아이들이 안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안에서 멋진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돕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날

8 월은 브라질 장로교에서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으며, 정확히는 12 일이 그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미국 선교사 애시벨 그린 시몬톤(Ashbel Green Simonton)이 브라질에 도착한 지 166 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발리 두 가비엉 교회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해 설교하며 'missional church mind'를 가지자고 도전하였습니다.

매년 8 월 둘째 주 주일이 아버지의 날(Dia dos Pais)이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가정을 위한 은혜를 구하고, 매일 수고하는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 월에 7 일은 브라질 독립기념의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브라질을 위한 특별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모여 한주 동안 브라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브라질 사람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많은 교회들이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 복음을 전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브라질을 위한 특별 기도모임

오는 10 월에는 어린이날일 맞이하여 어린이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이 행사를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아이들을 환영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태양광 패널 설치 준비

지난 소식지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그 준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크게 인상되어 여러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록 동행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가족소식

1. 지난 6 월 브라질리아를 두 교회에서 전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과 두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차로 2 주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초창기 신학교 졸업한 제자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고,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후배 목사로서 그들을 만나며 귀한 도전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8 월 마지막 주(25~29 일)에는 STNe-MIPC 신학교 30 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재학생들과 졸업 후 목회자가 된 동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쌍파울루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귀한 말씀과 격려를 전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 아내는 허리디스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희귀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라 가서 뵙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9 월 말에 아내가 잠시 한국에 다녀옵니다.
3.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인 어른께서 여전히 희귀혈액암으로 치료 중 이신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4. 두주 전부터 예준이는 주일 오전예배에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준이는 피아노로 또래 친구들은 기타로 예배를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인이와 예찬이는 여전히 명랑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자리와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년 9 월

강경찬, 김민경, 예준, 예인, 예찬 올림